

희망 정읍 화두 '민생·경제·소통' 쟁점



이학수 정읍시장이 지난 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2023년 핵심 시책을 담은 시정 운영을 발표하고 있다.

정읍시가 지혜와 풍요, 번창을 상징하는 검은 토끼의 해를 맞아 신년 화두를 '새로운 시작, 희망의 정읍'으로 정했다.

시는 시민들의 행복을 응원하고 안전을 보듬으며,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할 '민생'을 가장 앞자리에 두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누구나 꿈을 가꾸고 꿈을 여는 교육·복지 구현, 농·생명의 첨단 도시 구현, 친절한 소통행정과 편리한 도시환경 정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혁신과 포용, 소통과 참여, 공정과 신뢰라는 핵심 가치 실현으로 민선 8기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완료하고, 이번 주 첫 업무를 시작했다.

이학수 시장은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해주신 시민들 덕분에 '시민 중심, 으뜸 정읍'의 초석을 다질 수 있었다"며 "올해도 1,700여 공직자와 함께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지혜롭게 헤쳐나가 풍요로운 정읍을 이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생경제 회복으로 풍요로운 정읍 만들기 주력

민선 8기 정읍시는 올해도 지역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는 정읍시장 상품권을 600억원 규모로 발행하고, 지역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이어주는 공공 배달앱을 구축해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유발, 잠재한 지역 상권을 살리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29억원을 투입, 1억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 원씩을 지급할 계획이다.

더불어, 지역 일자리 취업 증대센터를 확대 운영해 인력수급이 필요한 사업체와 구직자에게 최적의 맞춤형 연결시스템을 제공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간 소통을 통한 고객 유치와 매출 증대를 위해 1억 2천만원을 투입 지역 상품 라이브커머스(리빙)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2026년까지 매년 10억원씩 총 50억원의 청년발전기금을 조성해 청년들의 사회참여 확대와 권리보장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공무원 시험 준비생 80명과 공기업 시험 준비생 40명을 대상으로 청년 취업 시험 준비반을 운영해 수준 높고 효율적인 학습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농·생명의 첨단도시 구축... 살기 좋은 농촌 만들기 주력

시는 지역농협과 상생협력을 통한 특화 품목 지정 및 육성으로 농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산지 자원 특화사업 추진으로 작목반을 구성해 대표작물을 육성할 계획이다.

또 북면에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를 신설하고, 외국인 근로자가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농가 일손 부족을 해결할 계획이다.

또한, 30년간 1조7,00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을 지정받기 위해 지난해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계획 수립영역을 완료했으며, 앞으로 농생명·바이오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바이오 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더불어, 부전동에 반려동물 입양센터와 교육장 펫 카페, 놀이터 등으로 구성된 반려동물 놀이동산을 조성해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자연과 도시,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관광인프라 구축

시는 지난달 수립한 내장저수지 주변 종합발전계획에 따라 내장저수지와 그 주변의 수려한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시민과 관광객이 모두 즐길 수 있는 조화로운 생태관광지 조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총사업비 25억원을 투입, 정읍 문화유산 방문자센터와 정읍사 디지털 테마공원을 조성해 디지털 신기술로 문화·관광·레저를 묶어 새로운 관광 트렌드를 창출할 예정이다.

또 총사업비 100억원을 투입해 정읍천과 정읍역을 연계하는 관광 핫플레이스를 조성하고, 정읍역 지하차도를 복개해 다목적 활용 공간을 만들어 공연과 프리마켓 등 다양한 프로그램



공공 배달앱 구축 등 지역 내 소비촉진 유발 지역상권 살리는데 집중

산지 자원 특화사업 추진 작목반 구성 대표작물 육성

동학혁명 발상지 고부 관아 복원 시민 역사교육 현장으로 활용

어르신 무료 예방접종 확대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시민참여 정책 제안 차질 없이 구도심 중심지에 도시광장 조성

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더불어 정읍역과 정읍천 사이에 문화창작공간을 조성하고, 대규모 꽃과 빛의 정원으로 종합다목적인방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인 고부 관아 복원으로 부패하고 무능한 권력에 맞서 싸운 농민들의 한과 투쟁을 생생하게 묘사해 역사교육의 현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고사부리성 성벽도 서둘러 복원해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정읍을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일상을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따뜻하게

시는 쾌적한 환경과 편리한 교통 시스템을 구축해 지역에 사람들을 머물게 하고, 누구나 함께 행복을 누리는 복지 정책을 추진해 따뜻한 도시로 가꿔 나가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이를 위해 정읍역 후면을 비롯한 주차가 어

려운 지역에 공영주차장과 임시 공영주차장을 설치, 약 420여 대의 주차편을 확보하고, 공용 터미널의 시설을 보완할 계획이다.

또한, 감염병 질환에 취약한 어르신들께 대상 포진, 폐렴, 독감 등 무료 예방접종을 확대 지원하고, 올해부터는 59개월 이하 영유아를 양육하는 시민들에게 월 10만원씩 육아수당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어린이 기적의 놀이터를 조성해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며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양질의 출산과 양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공공산후조리원도 설립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20병상 규모의 어린이 전용 병동을 설치하고, 24시간 진료와 양육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해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어지는 교육복지를 실현해 나갈 방침이다.

▲시민이 민중할 때까지... 친절·소통·열린 행정 구현

시는 올해 정읍의 주인인 시민들이 민중할 때까지 친절·소통·열린 행정을 내실 있게 운영할 예정이다. 시민 중심의 친절과 소통행



정을 펼치기 위해 조직개편을 통해 '시민 소통실'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계층별, 분야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과 소통해 시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열린 행정을 실현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시정 관련 각 위원회에 여성, 청년 위원의 참여를 확대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듣는 시민참여 정책 제안 페스티벌도 차질 없이 추진해 시민과 함께 운영하는 시정을 구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민들이 방문해 쉬 수 있고, 즐기며 소통할 수 있도록 구도심 중심 지역에 도시광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학수 시장은 "모두가 힘을 합치면 격변하는 위기의 시대를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으리라는 마음으로 새해에도 힘차게 달려 나갈 것"이라며 "새로운 시작, 희망의 정읍을 만들어가는 그 역사적인 길에 시민 모두가 함께해 달라"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